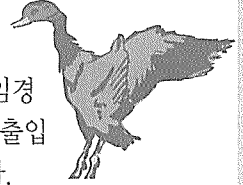


「조류인플루엔자 특별검역대책」 추진

- 닭, 오리 등 관련 생산자 단체와 합동으로 일제 홍보캠페인 실시



(사)한국오리협회 김규중 회장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장(지원장: 임경중)은 “조류인플루엔자특별검역대책”이 추진되는 '05.11.01일 인천국제공항을 출입하는 해외여행객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특별검역대책”은 '05년 11월부터 '06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되며,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가 주요 전파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해외여행객이 불법적으로 휴대 반입하는 닭고기·오리고기 등을 통해서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의 출발노선에 대하여 검역타미전을 집중 투입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일제 홍보 행사에는 국경검역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율방역에도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농협중앙회, 양계협회, 계육협회 및 토종닭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외국 가금 사육농장 방문 금지, 귀국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및 해외여행 후 국내 가금 사육농장을 2주 이상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